

북한이탈청소년의 문화변용유형의 결정요인: 개인적 특성, 가족요인, 친구요인을 중심으로*

최인아** · 이소연***

Ⅰ 알기 쉬운 개요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발달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새로운 사회에 편입되어 자아정체감 형성과 문화적응이라는 이중 과업에 당면한다. 탈북청소년들도 다른 이주배경 청소년들처럼 한국 정착 후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문화적응 정도가 이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예측하는 주요 지표라고 밝혀져 왔다. 탈북청소년의 문화적응유형은 주류문화 수용과 원문화 정체감 보유 여부에 따라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기존 연구는 대체로 탈북청소년이 동화 또는 통합유형일 때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이 안정적이라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떤 개인적 특성과 관계적 요인이 탈북청소년이 특정한 문화적응유형에 속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였다. 그 결과, 출생국, 가족유형, 가족응집성, 그리고 남한 친구지지와 원문화집단 친구지지가 탈북청소년의 문화적응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탈북청소년의 문화적응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출생국이라는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가족응집성을 향상시키고 양 문화권 공동체 모두와의 교류를 지원하는 등의 가족과 또래 차원에서의 다각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 본 연구는 최인아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석사,
lovelyina0210@gmail.com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교신저자,
leesy@sookmyung.ac.kr

투 고 일 / 2022. 12. 5.
심 사 일 / 2023. 1. 12.
심사완료일 / 2023. 2. 8.

Ⅱ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탈북청소년의 문화변용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 및 관계적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만 13세 이상 24세 이하의 탈북청소년 129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탈북청소년의 문화변용유형은 주변화(30.2%), 동화(26.4%), 분리(25.6%), 통합(17.8%)순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문화변용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개인적 특성 중에는 출생국이 문화변용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출생 탈북청소년은 중국출생 탈북청소년과 비교해 다른 유형보다는 동화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컸는데, 북한출생의 경우 동화, 주변화, 통합, 분리유형 순으로, 중국출생의 경우 분리, 주변화, 통합, 동화유형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요인으로는 가족유형과 가족응집성이 문화변용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응집성이 높을수록 분리형이나 주변화형보다 통합형에 그리고 주변화형보다 동화형에 속할 가능성이 컸다. 친구요인으로는 양문화 공동체의 친구지지 모두 문화변용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원문화집단으로부터의 지각된 친구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주변화형 보다는 통합형, 동화형, 분리형에 그리고 남한친구로부터의 지각된 친구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분리형이나 주변화형 보다는 통합형이나 동화형에 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본 연구는 문화변용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관계적 요인을 다각적으로 규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탈북청소년, 문화변용유형, 출생국, 가족응집성, 친구지지

I. 서 론

북한이탈청소년은 심리·정서·사회적으로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에 그들의 본거지를 떠나 새로운 사회에 편입된다. 이로 인해 탈북청소년은 이주민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듯(Berry, 1997) 청소년 단계에서 겪는 정체성 혼란뿐만 아니라 이주민으로서 겪는 문화변용 스트레스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탈북청소년은 한국 정착 후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으며(백혜정, 길은배, 2008), 문화변용 스트레스가 학교 중도탈락의 주요영향요인이 되는 등(김연희, 2009), 실제 적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탈북청소년의 문화변용 과정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탈북청소년의 이러한 문화변용 과정은 Berry의 문화변용 모델을 근거로 하여 연구되어왔다. 문화변용(acculturation)이란 개인이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이동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문화접촉을 통해 태도와 행동 등을 포함한 심리적·사회문화적 변화를 경험하는 과정을 일컫는다(Berry, Phinney, Sam, & Vedder, 2006). Berry(1997)는 주류문화 수용과 원문화 보유 여부에 따라 문화변용의 결과를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의 네 가지로 분류했다. 주류문화를 수용하며 원문화도 보유하면 통합, 주류문화만을 수용하고 원문화는 보유하지 않으면 동화, 주류문화를 수용하지 않고 원문화만 보유하면 분리, 두 문화 모두와 거리를 두면 주변화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 모델을 근거로 탈북청소년의 문화변용유형도 북한문화(원문화) 정체감 보유와 남한문화(주류문화) 정체감 수용을 기준으로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로 분류해 연구되어 왔다(금명자, 권혜수, 이희우, 2004; 김윤나, 2010; 김형태, 2010; 박영숙, 2012; 홍순혜, 이숙영, 2008; 홍순혜, 이숙영, 김선화, 2010).

탈북청소년의 문화변용유형을 파악하는 것은 이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수준이 어떠한지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통합유형이 탈북청소년의 긍정적 심리·사회적 적응을 예측하고 주변화 유형이 가장 부정적인 심리·사회적 적응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해외 이주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Berry et al., 2006). 그러나 해외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다르게 탈북청소년 집단에서는 동화형 또한 긍정적인 심리적 적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형태, 2010; 홍순혜, 이숙영, 2008). 구체적으로 통합유형의 집단에서 적응성과 긍정 행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김윤나, 2008; 박영숙, 2012), 동화유형이 남한 사회적응에서 그리고 통합과 동화유형이 자존감에서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김형태, 2010; 홍순혜, 이숙영, 2008). 같은 맥락에서 탈북청소년의 남한문화 수용 정도가 높을수록 위축과 불안이 낮고 일상생활 만족도가 높아지며, 북한 문화수용 정도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다(홍순혜, 이숙영, 2008). 즉, 탈북청소년이

통합 또는 동화유형을 취할 때 남한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심리·사회적 적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술한 바와 같이 탈북청소년들의 문화변용에 대한 연구는 어떤 문화변용유형을 채택하는 것이 심리·사회적인 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 밝히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 반면, 어떠한 요인이 탈북청소년이 특정 문화변용유형에 속하도록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한 연구는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변용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특히 개인적 특성과 그 개인을 둘러싼 관계적 요인에 초점을 두어 검증하고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문화변용유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개인적 특성인 출생국, 나이, 성별, 남한 거주기간 그리고 관계적 특성으로 가족요인(가족유형, 가족기능)과 친구요인(남한/원문화 친구지지)를 상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탈북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출생국, 성별, 나이, 남한 거주기간)이 문화변용유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탈북청소년의 관계적 특성 중 가족요인(가족유형, 가족기능)이 문화변용유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탈북청소년의 관계적 특성 중 친구요인(원문화집단 친구지지, 남한 친구지지)이 문화변용유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개인적 특성

탈북청소년의 문화변용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요인으로 먼저 출생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은 2017년을 기점으로 전체 초중고 탈북학생의 절반 이상(56.7%)을 넘었는데(교육부, 2017), 교육부는 이들을 ‘탈북청소년’으로 통칭하며 북한출생 탈북청소년과 유사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한다. 그러나 탈북청소년의 문화변용유형을 파악하는 데 있어, 출생국을 고려한 연구는 아직 전무하다.

출생국 변인은 탈북청소년의 문화변용유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 이유는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은 북한출생 탈북청소년과는 다른 수준의 원문화 정체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출생 탈북청소년들은 대부분 북한사람이라는 정체성 보다 한국인 또는 중국인으로서의 정체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신을 한국인(36.7%) 또는 중국인(33.3%)으로 느낀다고 보고했고, 일부만이 자신을 탈북자(13.3%) 또는 한국인과 중국인(13.3%)으로 느낀다고 보고했다(양혜린, 김옥수, 고윤정, 박연미, 이해란, 2016). 즉, 중국출생의 경우 북한출생과 달리 원문화 정체감으로 중국문화 정체감을 보고하며, 이에 따라 원문화 정체감 수준이 다를 가능성이 시사된다. 이러한 예측을 지지하는 연구로 한족, 조선족, 몽골 출신의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출신 배경에 따른 원문화와 주류문화 정체감의 차이를 탐색한 연구가 있다(좌동훈, 2014). 이들은 출신 국적에 따라 한국문화 정체감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원문화 정체감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조선족에 비해 한족 출신이 원문화 정체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는 출신 국적에 따라 원문화 정체감과 문화변용유형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여러 선행연구에서 탈북청소년의 문화변용유형과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 성별이 제안되었다. 탈북청소년의 통합유형의 비율은 남자가 여자보다 두 배 이상 높았지만, 동화형의 비율은 여자가 남자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형태, 2010). 성년인 탈북청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남한문화 행동수준이 낮고 남한에서의 문화충격과 이질감 수준이 더 높았으며, 북한문화 가치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한나, 이승연, 이지영, 2017). 그러나 탈북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문화변용유형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게 보고되기도 하여(김윤나, 2008; 금명자 외, 2004), 성별에 관한 결과는 다소 비일관적이다.

나이 또한 탈북청소년의 문화변용유형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된다.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내면화 문제나 대인관계 문제 같은 심리·사회적 적응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희경, 신현균, 2015; 백혜정, 길은배, 윤인진, 이영란, 2007). 또한 서구 이주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0대 중후반의 서구 이주민 청소년 집단이 10대 초반에 비해 양 문화정체감 모두와 거리를 두는 주변화 유형에 더 많이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erry et al., 2006). 그러나 탈북청소년의 연령과 문화적응 간에는 유의한 상관성이 없거나(금명자, 김동민, 권해수, 이소영, 이희우, 2003; 김형태, 2010; 박윤숙, 2006), 오히려 탈북청소년의 연령이 낮을수록 사회 적응상의 어려움을 더 많이 보인다는 연구도 있는데(김형태, 2004), 이는 북한 출신의 경우 언어적 이질감이 비교적 덜하여 언어습득이 빠른 어린 연령대가 얻을 수 있는 상대적 이익이 거의 없기 때문으로 추측된다(백혜정 외, 2007).

탈북청소년과 같은 이주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개인적 특성으로 정착지에서의 거주기간이 있다. 문화변용은 과정이기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금명자 등(2004)의 연구에서 하나월 시절인 4개월 이하의 탈북청소년들은 통합과 동화, 그 후 1년 동안에는 분리, 1~2년 사이에는 주변화, 2년이 경과한 후에는 통합유형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남한 거주기간이 길수록 전반적인 남한 문화적응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박윤숙, 2006; 박윤숙, 윤인진, 2007), 문화변용유형에 따른 남한 거주기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기도 하였다(김형태, 2010).

2. 가족요인

탈북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지지와 같은 관계적 변인이 개인적 변인보다 탈북청소년의 문화적응을 더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박윤숙, 윤인진, 2007). 이주민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으로는 가족, 친구, 이웃 뿐 아니라 더 넓게는 국가의 정책 및 다문화주의에 대한 사회 분위기 등이 있는데(Berry et al., 2006),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러한 사회적 요인 중 공적 기관과 같은 공식 지지망보다 혈연과 애정 등으로 이어진 가족, 친구와 같은 비공식 지지망이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밝혀진 바 있다(박윤숙, 윤인진, 2007).

탈북청소년의 문화적응은 여러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이주 청소년에게 가족의 영향은 특히 더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례로 터키 출신의 네덜란드 이민자 청소년들은 가족이 그들의 정체감과 자기개념 형성에 중요하다 보고하였지만, 네덜란드 이민자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았다(Verkuyten, & Thijs, 2001). 탈북청소년도 앞서 언급한 이주 청소년들과 유사하게 남한 청소년과 비교해 높은 가족주의적 가치지향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는데(이주아, 이은경, 이순형, 2016), 이는 탈북청소년에게 가족의 영향력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탈북청소년은 가족이 중요하다는 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부모의 보호를 받는 탈북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과 비교해 남한 친구가 많고, 수업 집중도가 높고, 남한 사회의 지식을 더 즐겁게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홍순혜, 정익중, 박윤숙, 원미순, 2003) 가족이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부모의 보호를 받는 집단이 부모 외의 보호자를 가진 집단보다 남한사회 적응수준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홍순혜 외, 2003), 이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이 남한사회 적응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가족유형이 탈북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상반된 결과도 존재하는데, 부모 보호 집단이 후견인 보호 집단이나 보호자가 없는 집단보다 정서적 적응수준이 낮게 나타난 연구결과도 있다(박윤숙, 2006). 실제로 탈북청소년은 부모와 남한 사회에서의 적응 속도 차이로 인해 공감대 형성이 빈약한 문제나(심양섭, 김현주, 2015), 부모의 권위적 양육방식에 의해 세대 간 갈등을 보고하기도 하는데, 이때 가족은 남한사회 적응에 오히려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이기영, 2002). 이러한 사실은 부모의 유무만이 탈북청소년의 적응을 확실히 담보하지 못하며, 가족의 기능이 순기능적이지 않을 때 탈북청소년의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가족유형뿐 아니라 가족기능 또한 중요하게 탐색 되어야 한다.

가족기능과 관련한 대표적인 개념으로 가족유연성과 가족응집성이 있다. 먼저 가족이 내적으로 잘 기능하는지와 관련한 개념인 가족응집성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가지는 정서적 유대감으로(Olson, Russel, & Sprenkle, 1983), 가족응집성이 높을수록 효율적인 가족기능이 유지된다. 또한 가족이 어떻게 외적으로 기능하는지도 중요한데, 이와 관련한 개념이 가족유연성이다. 가족유연성이란 상황적으로 또는 발달 단계상 일어날 수 있는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가족체계의 권력구조, 역할관계 및 규칙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다.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기능과 문화변용유형의 관련성을 검증한 국내 연구는 아직 없으나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국외 연구가 있다. 청소년을 포함한 라틴계 이주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Miranda, Estrada, & Firpo-Jimenez, 2000), 주류문화 적응수준이 낮은 분리형에 해당하는 가족(low acculturation families)이 동화형(high acculturation families)이나 통합형에 해당하는 가족(bicultural acculturation families)에 비해 가족응집성 수준이 높았다. 그리고 동화형과 통합형 가족이 분리형에 해당하는 가족보다 가족유연성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족응집성은 원문화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가족유연성은 주류문화를 수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 한편 전 연령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가족응집성이 높을수록 남한사회에서 느끼는 사회적 소속감이 낮은 반면, 가족응집성이 높을수록 남한에서 언어나 문화차이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활동제약 문제를 덜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진미정, 이순형, 2007). 이는 가족응집성이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멕시코계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Vidal de Haymes, Martone, Muñoz, & Grossman, 2011) 맥을 같이 한다.

3. 친구요인

탈북청소년의 문화변용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관계적 변인으로는 친구지지가 있다.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통합형과 분리형의 탈북청소년이 주변화형의 탈북청소년보다 북한 친구지지를 높게 지각하였고, 통합형과 동화형이 분리형과 주변화형 보다 남한친구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형태, 2010). 성년인 탈북민을(18~28세)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남한문화 행동이 우세한 동화유형에서 지각된 남한공동체의 지지가

높게 나타난 반면, 북한공동체 지지는 문화변용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한나 외, 2017). 노르웨이의 948명의 난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주류문화집단의 친구지지는 높은 주류문화 지향성과 관련되고, 가족지지와 원문화집단의 친구지지와 같은 원문화 공동체의 지지는 높은 원문화 지향성과 관련이 있었다(Oppedal & Idsoe, 2015).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연구대상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24세 이하 탈북청소년이다. 본 연구에서 ‘탈북청소년’이라 함은 북한 또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의미한다. 엄격하게 말해,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 관련 법령에서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북한에서 출생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청소년만을 의미한다. 그러나 교육부의 경우 북한출생과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모두 탈북학생으로 명명하여 대부분 유사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는 점 그리고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제3국 출생 또한 ‘탈북청소년’으로 명명하며 연구해 온 점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도 ‘탈북청소년’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한편 연구대상의 나이를 24세까지로 통상 청소년의 연령보다 높게 설정하였는데 이는 탈북과정에서 학업단절을 경험하여 20세 이후에도 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탈북청소년이 많은 것으로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연령이라도 중·고등학생이 아닌 대학생인 탈북청소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수도권과 경상도 지역에서 탈북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6곳(서울 소재 4곳, 경기도 소재 2곳), 하나둘 학교(하나원 운영, 경기도), 새터민 지원센터 1곳(인천), 탈북민교회 1곳(경상도)을 편의 표출하였으며, 설문조사는 연구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하거나 연락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후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동시에 눈덩이 표집으로 대상자를 소개받아 연구대상자를 모집하였고, 이 경우 연구대상자가 연구자와 일대일 대면접촉으로 인해 신원 노출의 불편함이나 설문지의 우편전달로 인한 거주지 노출 등의 익명성 침해를 방지하고자 온라인 설문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오프라인에서 98부, 온라인에서 71부로 총 169부의 설문지가 수집되었으며, 부모 동의서가 없거나 연구대상자가 아닌 경우 등을 제외하고 오프라인에서 78부, 온라인에서 51부로 총 129부의 자료를 최종분석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N=129)

구분	분류	빈도(%)
성별	남	52(40.3)
	여	77(59.7)
출생국	북한	65(50.4)
	중국	64(49.6)
거주 가족	양부모와 거주	51(40.2)
	한부모와 거주	47(37.0)
	혼자 또는 형제, 친척 등과 거주	29(22.8)
종교	무교	46(36.2)
	개신교	70(55.1)
	천주교	3(2.4)
	불교	2(1.6)
	기타	6(4.7)
남한 거주기간	3년 미만	63(48.8)
	3~5년 미만	36(27.9)
	5~10년 미만	22(17.1)
	10년 이상	8(6.2)
남한 거주기간(년) ^a		4.27(3.42) ^b
출생지 거주기간(년)		15.02(4.06) ^b
나이(세)		18.91(2.14) ^b

(1) a. 남한 거주기간 = 설문지 응답 연도-남한입국 연도

(2) b. 단위: 평균(SD)

2. 측정도구

1) 가족유연성과 응집성 평가척도(Family Adaptability & Cohesion Evaluation Scales IV: FACES IV)

탈북청소년의 가족유연성과 응집성을 측정하기 위해 Gorall, Tiesel과 Olson(2004)이 개발한 가족유연성과 응집성 측정도구 4판(Family Adaptability & Cohesion Evaluation Scales IV: FACES IV)을 이미숙(2014)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7번과 12번 문항만 분명한 의미 전달을 위해 정지영(2008)이 번역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FACES IV는 총 42문항으로 6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된다. 6개의 하위척도는 균형요인인 유연성과 응집성 그리고

불균형 요인인 밀착, 분리, 혼란과 경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균형적도인 유연성 7문항과 응집성 7문항, 총 14문항을 사용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평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하위요인별 총점을 사용했으며,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유연성과 응집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4로 산출되었고,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가족응집성은 .90, 가족유연성은 .99로 각각 나타났다.

2) 남한/원문화집단 친구지지 척도

탈북청소년의 남한 친구지지와 원문화집단 친구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Dubow와 Ullman(1989)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평가 척도(SSAS)’를 한미현(1996)이 수정·보완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나 등(2017)이 북한이탈 청년에게 맞게 지지원을 ‘북한 친구’, ‘남한 친구’로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이 자신의 원문화집단의 친구의 지지를 보고할 수 있도록 ‘북한 친구’를 나와 같은 곳 출신의 ‘북한(또는 제3국) 친구’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남한 친구지지와 원문화집단 친구지지는 각각 8문항으로 구성되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평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총점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공동체로부터의 사회적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남한 친구지지 .86, 원문화집단 친구지지 .88로 각각 나타났다.

3) 문화적응 정체감 척도

탈북청소년의 문화변용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Ahn(1999)이 아시아계 미국인의 민족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개발한 Korean-American Ethnic Identity Scale(KAEIS) 50문항을 금명자 등(2004)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문화적응 정체감 척도를 사용했다. 본 척도는 남한문화에 관한 관심과 남한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려는 ‘남한 문화적응 정체감’ 요인 18문항과 북한문화 정체감을 유지하려는 ‘북한 문화적응 정체감’ 요인 20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문화적응 정체감 요인을 측정하는 각 문항의 ‘북한’을 ‘북한(또는 중국/제3국)’으로 수정하여 사용했다. 이는 중국 등의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의 경우 원문화 정체감으로 북한보다 중국 등 제3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하는 문화적응 정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척도처럼 연구대상자가 응답한 각

하위요인 점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 유형으로 분류했다. 본 척도의 하위 요인별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남한문화적응 정체감 .87, 원문화적응 정체감 .87로 각각 나타났다.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했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에 앞서 종속변수인 문화변용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점수가 되는 문화적응 정체감 변인의 결측률이 약 5%로 비교적 높게 관측되어, 분석 전 해당 결측치를 다중 대체법(multiple imputation)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완전 제거법(listwise deletion)을 이용한 결측치 처리 시, 결측치가 있는 표본 전체가 유실되어 표본의 왜곡이나 통계적 검정력 약화가 예측되기에(Ibrahim, Lipsitz, & Chen, 1999), 자료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결측치 대체방법과 관련하여 다중 대체법이 결측률이 30% 이하인 경우에 통계적 편의를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검증된 것과(고길곤, 탁현우, 2016), 다중 대체의 횟수는 3~10회의 대체를 반복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권고(Barnes, Lindborg, & Seaman, 2006)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5회의 반복을 통해 결측치 대체를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배경 및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하고,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또한 연구문제 1, 2, 3을 검증하기 앞서 남한문화적응 정체감 점수와 원문화적응 정체감 점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로 분류하고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각 유형별 빈도(N) 및 각 문화변용유형에 따른 탈북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연구문제 1의 개인적 특성이 문화변용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수집 방법을 통제변인으로, 출생국, 성별, 나이, 남한 거주기간을 독립변수로, 문화변용유형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연구문제 2의 탈북청소년의 가족유형과 가족기능(가족유연성, 가족응집성)이 문화변용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수집방법을 통제변인으로, 가족유형, 가족유연성, 가족응집성을 독립변수로, 문화변용유형을 종속변수로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연구문제 3의 탈북청소년의 원문화집단 친구지지와 남한 친구지지가 문화변용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자료수집방법을 통제변인으로, 원문화집단 친구지

지와 남한 친구지지를 독립변수로, 문화변용유형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연구문제와 별도로 본 연구에서 설정된 모든 변인들(개인적 특성, 가족요인, 친구요인)을 투입하여 문화변용유형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료수집방법을 통제변인으로, 출생국, 성별, 나이, 남한 거주기간, 가족유형, 가족응집성, 가족유연성, 원문화 집단 친구지지와 남한 친구지지를 독립변수로, 문화변용유형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회귀분석이 아닌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종속변수인 문화변용유형이 서열화된 집단이 아니라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유형으로 범주형 변수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종속변수인 문화변용유형의 집단들을 각각을 비교하여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확률을 분석하고자 한다.

IV. 연구결과

1. 탈북청소년의 문화변용유형

탈북청소년의 문화변용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을 분석하기에 앞서 남한 문화적응 정체감과 원문화인 북한 또는 중국 문화적응 정체감의 평균을 중심으로 4개의 문화변용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 남한문화적응 정체감 점수와 원문화적응 정체감 점수가 모두 평균 이상이면 '통합', 남한문화적응 정체감 점수는 평균 이상이나 원문화적응 정체감 점수는 평균 미만인 경우 '동화', 남한문화적응 정체감 점수는 평균 미만이고 원문화적응 정체감 점수는 평균 이상인 경우 '분리', 남한문화적응 정체감 점수와 원문화적응 정체감 점수가 모두 평균 미만인 경우 '주변화'로 분류하였다. 상기 언급한 기준에 따라 집단을 구성한 결과 주변화 39명(30.2%), 동화 34명(26.4%), 분리 33명(25.6%), 통합 23명(17.8%) 순으로 나타나 주변화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문화변용유형에 따른 탈북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탈북청소년의 문화변용유형별 일반적 특성

(N=129)

구분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	총 계	
나이 ^a	18.2(1.9)	19.7(2.2)	18.2(2.3)	19.3(1.7)	-	
남한 거주기간 ^a	4.7(3.2)	3.5(3.4)	3.4(2.1)	5.3(4.2)	-	
성별 ^b	남	12(23.1)	9(17.3)	13(25)	18(34.6)	52(100)
	여	11(14.3)	25(32.5)	20(26)	21(27.3)	77(100)
출생국 ^b	북한	10(15.4)	30(46.2)	6(9.2)	19(29.2)	65(100)
	중국	13(20.3)	4(6.3)	27(42.2)	20(31.3)	64(100)
거주 가족 ^{b,c}	양부모와 거주	7(14.9)	12(25.5)	17(36.2)	11(23.4)	47(100)
	한부모와 거주	13(25.5)	5(9.8)	15(29.4)	18(35.3)	51(100)
	혼자 또는 기타	3(10.3)	15(51.7)	1(3.4)	10(34.5)	29(100)
총계 ^b	23(17.8)	34(26.4)	33(25.6)	39(30.2)	129(100)	

1) a. 단위: M(SD)

2) b. 단위: N(%)

3) c. 거주 가족: 결측=2, 유효=127

2. 탈북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 문화변용유형에 미치는 영향

1) 탈북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 문화변용유형에 미치는 영향

탈북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인 출생국, 성별, 나이, 남한 거주기간이 문화변용유형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자료수집방법(온라인/오프라인)을 통제하였다. 이렇게 통제변인을 설정한 이유는 오프라인 설문은 대부분 대안학교에서 진행됐지만, 온라인 설문의 일부는 눈덩이 표집 방법을 사용하여 일반학교 재학생 등 더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두 집단의 특성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자료수집방법에 따른 종속변인의 차이를 카이검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15.54, p<.01$). 구체적으로 오프라인 설문자들은 분리(34.6%), 주변화(30.8%), 통합(19.2%), 동화(15.4%) 유형 순으로 많았고, 온라인 설문자들은 동화(43.1%), 주변화(29.4%), 통합(15.7%), 분리(11.8%) 유형순으로 나타나 자료수집방법에 따라 문화변용유형에서 상이한 특성을 보였다.

먼저, 표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연구모형은 기저모형보다 적합도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chi^2=38.33, p<.001$), 본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9.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통제변인 투입 시, 통제변인은 강제입력항으로 설정하고 독립변수들은 단계 선택항으로 설정하여 분석하며, 이때 통제변인과 단계선택법에 따라서 추출된 유의한 독립변인만이 최종 모형에 포함되어 결과로 도출된다(김원표, 2017). 이에 출생국, 성별, 나이, 남한 거주기간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결과,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개인적 특성과 관련된 변인 중 출생국만이 문화변용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탈북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 문화변용유형에 미치는 영향 (N=120)^a

기준유형	비교 유형	변수	B	S.E	Wald	OR
통합	동화	상수	-1.04	0.79	1.75	.
		자료수집방법 ^b	-0.49	0.64	0.60	0.61
		출생국 ^c	2.36**	0.78	9.26	10.60
	분리	상수	0.19	0.65	0.09	.
		자료수집방법	0.62	0.67	0.86	1.87
		출생국	-0.92	0.66	1.90	0.40
주변화	상수	상수	0.41	0.58	0.51	.
		자료수집방법	0.13	0.59	0.05	1.13
	출생국	출생국	0.22	0.58	0.15	1.25
		상수	1.23	0.79	2.43	.
동화	분리	자료수집방법	1.12	0.66	2.83	3.06
		출생국	-3.28***	0.78	17.64	0.04
		상수	1.45*	0.73	4.01	.
	주변화	자료수집방법	0.62	0.55	1.29	1.86
		출생국	-2.14**	0.71	9.10	0.12
		상수	0.22	0.58	0.15	.
분리	주변화	자료수집방법	-0.50	0.60	0.69	0.61
		출생국	1.14	0.58	3.81	3.12

Model Chi-square= 38.33 (df=6), $p < .001$
 2 Log likelihood =263.37
 Nagelkerke $R^2 = .292$

1) * $p < .05$, ** $p < .01$, *** $p < .001$
 2) a. 결측=9, 유효=120
 3) b. 1=오프라인, 0=온라인, 자료수집방법: 통제 변수
 4) c. 1=북한, 0=중국

본 연구에서 제3국 출생 응답자는 모두 중국출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출생과 중국출생 탈북청소년을 비교하면, 북한출생 청소년은 중국출생 청소년에 비해 통합형보다 동화형에 속할 가능성이 96%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OR=10.60, $p < .01$), 동화형보다는 분리형이나 주변화형에 속할 가능성은 각각 96%(OR=0.04, $p < .001$), 88%(OR=0.12, $p < .01$)씩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앞서 표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북한출생 탈북청소년 65명은 동화(46.2%) 유형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변화(29.2%), 통합(15.4%), 분리(9.2%) 유형 순으로 많았다. 반면 중국출생 탈북청소년 64명은 분리(42.2%) 유형이 가장 많았고, 주변화(31.3%), 통합(20.3%), 동화(6.3%) 유형 순으로 많았다.

2) 탈북청소년의 가족유형과 가족기능이 문화변용유형에 미치는 영향

탈북청소년의 가족유형과 가족기능(가족응집성, 가족유연성)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문화변용유형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표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연구모형은 기저모형에 비해 적합도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chi^2=50.45$ $p < .001$), 본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5.7%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요인 중에서는 가족유형과 가족응집성이 문화변용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족유형과 관련하여 한부모와 거주할 경우 기준집단(부모와 동거 안 함)에 비해 통합형보다 동화형에 속할 가능성이 86% 감소하고(OR=.14 $p < .05$), 동화형보다 분리형에 속할 가능성은 3,536% 증가하며(OR=36.36 $p < .01$), 동화형보다 주변화형에 속할 가능성도 72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R=8.20, $p < .01$). 한편,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집단은 기준집단에 비해 동화형보다 분리형에 속할 가능성이 1,55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R=16.54, $p < .05$). 정리하면, 한부모와 거주하는 경우 기준집단에 비해 동화형보다 통합, 분리, 주변화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고, 양부모와 거주하는 경우 기준집단에 비해 동화형보다는 분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기능 중 가족응집성 또한 문화변용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가족응집성이 1단위 증가할수록 통합형보다는 분리형과 주변화형에 속할 가능성이 각각 15%(OR=.85, $p < .05$), 19% (OR=.81, $p < .001$)씩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응집성이 1단위 증가할수록 동화형보다 주변화형에 속할 가능성이 12%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OR=.88, $p < .05$). 즉, 탈북청소년의 가족응집성이 높을수록 주변화형 보다는 동화형과 통합형, 그리고 분리형보다는 통합형에 속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났다.

표 4
탈북청소년의 가족유형, 가족 응집성, 가족 유연성이 문화변용유형에 미치는 영향 (N=124)^a

기준유형	비교 유형	변수	B	S.E	Wald	OR
	동화	상수	4.19*	1.97	4.51	
		자료수집방법 ^b	-1.31*	0.64	4.23	0.27
		가족유형(한부모) ^c	-1.94*	0.88	4.84	0.14
		가족유형(양부모) ^c	-0.50	0.85	0.34	0.61
		가족응집성	-0.09	0.07	1.57	0.92
통합	분리	상수	2.71	2.14	1.61	
		자료수집방법	0.32	0.68	0.22	1.38
		가족유형(한부모)	1.65	1.27	1.69	5.22
		가족유형(양부모)	2.31	1.29	3.19	10.05
		가족응집성	-0.16*	0.07	5.79	0.85
	주변화	상수	6.43***	1.88	11.67	
		자료수집방법	-0.48	0.63	0.58	0.62
		가족유형(한부모)	0.16	0.87	0.04	1.18
		가족유형(양부모)	0.24	0.91	0.07	1.27
		가족응집성	-0.22***	0.07	11.05	0.81
동화	분리	상수	-1.48	1.83	0.65	
		자료수집방법	1.63*	0.64	6.43	5.09
		가족유형(한부모)	3.59**	1.22	8.61	36.36
		가족유형(양부모)	2.81*	1.16	5.81	16.54
		가족응집성	-0.08	0.06	1.51	0.93
	주변화	상수	2.23	1.29	3.00	
		자료수집방법	0.83	0.56	2.16	2.29
		가족유형(한부모)	2.10**	0.78	7.21	8.20
		가족유형(양부모)	0.74	0.70	1.09	2.09
		가족응집성	-0.13*	0.05	6.16	0.88
분리	주변화	상수	3.72*	1.65	5.07	
		자료수집방법	-0.80	0.62	1.66	0.45
		가족유형(한부모)	-1.49	1.16	1.65	0.23
		가족유형(양부모)	-2.07	1.17	3.14	0.13
		가족응집성	-0.06	0.05	1.14	0.95

Model Chi-square=50.45 (df=12), $p < .001$

2 Log likelihood =279.64

Nagelkerke $R^2 = .357$

1) * $p < .05$, ** $p < .01$, *** $p < .001$

2) a. 결측=5, 유효=124

3) b. b. 1=오프라인, 0=온라인, 자료수집방법: 통제 변수

4) c. 참조 집단: 부모와 거주하지 않음

3) 탈북청소년의 원문화집단 친구지지와 남한 친구지지가 문화변용유형에 미치는 영향

탈북청소년의 남한 친구지지와 원문화집단(북한 또는 중국) 친구지지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문화변용유형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표 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연구모형은 기저모형에 비해 적합도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chi^2=81.95, p<.001$), 본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51.4%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원문화집단 친구지지와 남한 친구지지 모두 탈북청소년의 문화변용유형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원문화집단으로부터 지각하는 친구지지가 1단위 증가할수록 통합형, 동화형, 분리형보다 주변화형에 속할 가능성이 각각 32%(OR=.68, $p<.001$), 25%(OR=.75, $p<.01$), 33%씩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OR=.67, $p<.001$) 나타났다. 즉, 탈북청소년이 원문화집단 친구로부터 받는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주변화형 보다는 문화적 정체성을 하나 이상 보유하는 통합형, 동화형, 분리형에 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한친구로부터 지각하는 친구지지가 1단위 증가할수록 통합형보다 분리형이나 주변화형에 속할 가능성이 각각 24%(OR=.76, $p<.01$), 22%(OR=.78, $p<.05$)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한 친구로부터 지각하는 친구지지가 1단위 증가할수록 동화형보다 분리형이나 주변화형에 속할 가능성이 각각 27%(OR=.73, $p<.001$), 25%(OR=.75, $p<.01$)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탈북청소년이 남한 친구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분리형이나 주변화형 보다는 통합형이나 동화형에 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탈북청소년의 원문화집단과 남한 친구지지가 문화변용유형에 미치는 영향 (N=125)^a

기준유형	비교 유형	변수	B	S.E	Wald	OR
동화		상수	3.06	2.99	1.05	
		자료수집방법b	-1.55*	0.64	5.77	0.21
		원문화집단 친구지지	-0.10	0.07	1.92	0.90
		남한 친구지지	0.04	0.08	0.26	1.04
통합	분리	상수	7.46*	3.22	5.36	
		자료수집방법	0.36	0.72	0.26	1.44
		원문화집단 친구지지	0.01	0.08	0.02	1.01
		남한 친구지지	-0.28**	0.09	9.14	0.76
주변화		상수	18.74***	3.68	25.93	
		설문방법	-1.35	0.72	3.45	0.26
		원문화집단 친구지지	-0.39***	0.10	16.48	0.68
		남한 친구지지	-0.24*	0.10	6.38	0.78

기준유형	비교 유형	변수	B	S.E	Wald	OR
동화	분리	상수	4.40	3.02	2.13	
		자료수집방법	1.91**	0.67	8.11	6.75
		원문화집단 친구지지	0.11	0.08	2.16	1.12
		남한 친구지지	-0.32***	0.09	11.95	0.73
	주변화	상수	15.68***	3.28	22.82	
		자료수집방법	0.20	0.62	0.10	1.22
		원문화집단 친구지지	-0.29**	0.09	10.31	0.75
		남한 친구지지	-0.28**	0.09	9.73	0.75
분리	주변화	상수	11.28***	3.25	12.02	
		자료수집방법	-1.71*	0.69	6.16	0.18
		원문화집단 친구지지	-0.40***	0.09	19.22	0.67
		남한 친구지지	0.04	0.10	0.13	1.04

Model Chi-square=81.95 (df=9), $p < .001$

2 Log likelihood =238.98

Nagelkerke $R^2 = .514$

1) * $p < .05$, ** $p < .01$, *** $p < .001$

2) a. 결측=4, 유효=125

3) b. b. 1=오프라인, 0=온라인, 자료수집방법: 통제 변수

4) 탈북청소년의 출생국, 성별, 나이, 남한 거주기간, 가족유형, 가족응집성, 가족유연성, 남한 친구지지, 원문화집단 친구지지가 문화변용유형에 미치는 영향

추가적으로, 독립변수로 상정한 모든 변수(출생국, 성별, 나이, 남한 거주기간, 가족유형, 가족응집성, 가족유연성, 남한 친구지지, 원문화집단 친구지지)를 투입해 문화변용유형의 결정요인을 파악한 결과, 표 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모델이 탈북청소년의 문화변용유형을 6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은 기저모형에 비해 적합도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chi^2=81.95$, $p < .001$), 해당 모형에서는 출생국, 남한 친구지지, 원문화집단 친구지지가 문화변용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모형에서는 간명한 결과 제시를 위해 기준유형을 주변화 유형으로만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출생국 변인과 관련하여, 북한출생 탈북청소년은 중국출생 탈북청소년에 비해 주변화형보다 동화형에 속할 가능성이 746% (OR=8.46, $p < .05$) 높고, 주변화형보다 분리형에 속할 가능성은 78%(OR=0.22, $p < .0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요인과 관련된 변인들 중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이 없었고, 친구요인인 원문화 친구지지와 남한 친구지지는 모두

문화변용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원문화집단 친구로부터 지각하는 친구지지가 1단위 증가할수록 주변화보다 통합, 동화, 분리유형에 속할 확률이 각각 66%(OR=1.66, $p<.001$), 42%(OR=1.42, $p<.01$), 70%(OR=1.70, $p<.001$)씩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탈북청소년이 지각한 남한 친구의 지지가 1단위 증가할수록 주변화보다 동화형에 속할 가능성이 32%(OR=1.32, $p<.0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의 모든 독립변수를 투입한 모형에서는 출생국 및 남한친구와 원문화친구 지지요인이 문화변용 유형의 유의한 결정요인이 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6

탈북청소년의 출생국, 성별, 나이, 남한 거주기간, 가족유형, 가족 응집성, 가족유연성, 남한 친구지지, 원문화집단 친구지지가 문화변용유형에 미치는 영향 (N=112)^a

기준유형	비교 유형	변수	B	S.E	Wald	OR
통합		상수	-20.34***	4.14	24.16	
		자료수집방법 ^b	0.62	0.80	0.61	1.87
		출생국 ^c	-0.58	0.78	0.54	0.56
		원문화집단 친구지지	0.50***	0.12	18.12	1.66
		남한 친구지지	0.21	0.11	3.57	1.24
주변화	동화	상수	-18.88***	4.06	21.66	
		자료수집방법	-0.21	0.73	0.08	0.81
		출생국	2.13*	0.92	5.35	8.46
		원문화집단 친구지지	0.35**	0.11	9.81	1.42
		남한 친구지지	0.28**	0.11	6.95	1.32
분리		상수	-12.62***	3.65	11.96	
		설문방법	0.58	0.76	0.59	1.79
		출생국	-1.53*	0.76	4.04	0.22
		원문화집단 친구지지	0.53***	0.11	21.36	1.70
		남한 친구지지	-0.07	0.12	0.41	0.93

Model Chi-square=104.72 (df =12), $p<.001$

2 Log likelihood=201.61

Nagelkerke R^2 =.650

1) * $p<.05$, ** $p<.01$, *** $p<.001$

2) a. 결측=17, 유효=112

3) b. 1=오프라인, 0=온라인, 자료수집방법: 통계 변수

4) c. 1=북한, 0=중국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탈북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관계적 특성 중 가족요인과 친구요인이 문화변용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첫째, 탈북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중 출생국이 문화변용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출생 집단의 경우 중국출생 집단과 비교해 다른 모든 유형보다 동화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북한출생 탈북청소년은 동화 유형(46.2%)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변화(29.2%), 통합(15.4%), 분리(9.2%)유형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출생 탈북청소년은 분리(42.2%)유형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변화(31.3%), 통합(20.3%), 동화(6.3%) 유형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출생 탈북청소년¹⁾의 경우 분리유형이 많고 동화유형이 적어, 원문화 정체감은 높고 남한문화 정체감은 낮은 것이 이들의 특징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언어일 것이다. 많은 중국출생 탈북청소년은 중국어를 모국어로 쓰며, 중국어 사용능력을 미래 진로를 위한 주요 자원으로 인식하고 활용하기도 한다(양혜린 외, 2016; 황미혜, 2019).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출생 탈북청소년은 원문화 정체감을 유지하는 것이 비교적 쉬울 수 있다. 반대로 중국출생의 경우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전혜림, 2014; 최경자, 곽종문, 채경희, 박찬수, 2011), 남한문화 정체감 수용은 어려울 수 있다.

북한출생 탈북청소년의 경우 한국어가 모국어이며, 이러한 점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남한문화 정체감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주청소년이 정착한 사회의 언어를 유창하게 사용할수록 높은 주류문화 정체감을 보유하고 주류문화 행동수준도 높다고 밝혀져 있다(Berry et al., 2006). 반면 북한출생 탈북청소년은 북한문화 정체감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들의 남한 입국동기가 주로 북한생활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체제의 불만 등(정정애, 손영철, 이정화, 2013)인 것에서 엿볼 수 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거리감이 다른 이주민집단을 향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김혜숙, 김도영, 신희천, 이주연, 2011; 박정서, 2015),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북한출생 청소년이 낮은 원문화 정체감을 보고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차별을 경험할 때 주류사회에 동화되는 전략으로 대응하기 쉽고, 실제로 남한사회에서 동화 압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정영선, 2018; 채정민, 2003; 채정민, 이종한, 2004).

1) 설문에서 원문화 정체감을 측정하기 앞서 '남한을 제외하고 자신이 어느 나라와 문화적으로 가깝다고 생각하는지'를 파악한 결과 중국출생의 경우 북한(1명)과, '북한과 중국 사이'라는 기타 응답(1명)을 제외하고 모두 '중국'이라고 답했다.

둘째, 관계적 요인에서는 탈북청소년의 가족유형과 가족응집성이 문화변용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과 관련하여, 한부모와 거주하는 탈북청소년은 기준 집단(부모와 거주 안 함)에 비해 통합형, 분리형, 주변화형 보다 동화형에 속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양부모와 거주하는 집단의 경우 기준집단 대비 분리형보다 동화형에 속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최소 한 부모와 거주하는 경우 높은 남한문화 정체감을 보유하는 동화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작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부모 보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남한사회 적응수준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박윤숙, 2006)와는 상반되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선행연구와 상반된 결과는 출생국이라는 변인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출생국에 따라 가족유형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추가적으로 카이제곱(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인 차이가 유의하였다($\chi^2=38.46, p<.001$). 중국출생 탈북청소년의 경우 예외 없이 모두 최소 한부모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북한출생의 경우 과반에 가까운 46%가 부모와 거주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부모와 함께 사는 청소년의 비율이 높은 중국출생 집단의 경우 분리형이,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청소년의 비율이 높은 북한출생 집단의 경우 동화형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본 결과에서 나타난 문화변용유형의 차이는 가족유형 아니라 출생국에 따른 차이가 반영되어 있을 수 있어 결과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가족기능 중에서는 가족응집성만이 탈북청소년의 문화변용유형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가족응집성이 높을수록 분리형이나 주변화형보다 통합형에 속할 가능성이 크고, 주변화형보다 동화형에 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탈북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응집성이 높을수록 높은 남한문화 정체감이 특징인 통합과 동화형에 속할 가능성이 컸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응집성이 높은 원문화정체감과 관련된다는 해외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는 상반되지만, 탈북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 자녀 간 유대가 분리형이나 주변화형보다는 통합형에서, 주변화형보다는 동화형에서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이는 가족응집성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낮추어(Vidal de Haymes et al., 2011), 탈북청소년이 남한문화정체감을 더 잘 수용한 결과로 유추된다.

셋째, 탈북청소년이 지각한 원문화집단 친구지지와 남한 친구지지 모두 탈북청소년의 문화변용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문화집단으로부터의 지각된 친구지지가 높을수록 주변화형 보다 통합형, 동화형, 분리형에 속할 가능성이 크고, 남한친구로부터의 지각된 친구지지가 높을수록 분리형이나 주변화형 보다 통합형이나 동화형에 속할 가능성이 컸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주류집단 친구지지가 주류문화 정체성을, 원문화집단 친구지지가 원문화 정체성을 가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한나 외(2017)가 탈북청년(18~28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원문화집단 친구지지는 원문화 가치

및 행동수준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다른데, 이는 대학 또는 직업 생활을 하는 청년들과 달리 본 연구대상자인 중·고등학생의 경우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대안 학교에 다니며 여전히 원문화공동체와 교류가 많아, 원문화친구 지지의 영향력이 유의했을 것으로 유추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사점은 다음 같다. 첫째, 출생국에 따라 문화변용유형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 출생국을 나누어 문화변용유형을 연구하는 것의 중요성이 시사된다. 또한 중국출생의 경우 낮은 수준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예측하는 분리(42.2%)와 주변화(31.3%) 유형에 속해 있는 청소년이 대다수인데, 이는 많은 중국출생 탈북청소년이 남한사회에서 상당한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출생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남한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과 한국어 교육이 시급하게 확대되어야 한다. 참고로 북한출생 탈북청소년과 부모와 동반입국한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의 경우 남한입국 후 하나원에서 3개월 동안 남한사회에서의 적응을 위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으며, 기초적인 남한사회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부모의 초청으로 뒤늦게 입국한 제3국 출생 탈북주민 자녀는 하나원 입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남한사회 이해를 위한 이러한 기초적인 교육마저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부모초청으로 남한에 온 중국출생 탈북청소년 또한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필수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을 제언하는 바이다. 특히 정착한 사회에서의 언어유창성이 해당 나라의 문화정체감 수용과 직접적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는바(Berry et al., 2006) 중국출생 탈북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교육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통일부가 운영하는 하나원에서 우리말 교육이 단기간 제공되고, 여성가족부에서 위탁 운영하는 레인보우스쿨 등에서 중도입국청소년에게 한국어 교육지원이 제공되고 있지만, 좀 더 다각적인 한국어 교육 방안이 고민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남한 청소년과 중국출생 탈북청소년을 1:1 매칭하여 한국어와 중국어의 언어교환을 하는 형태의 교류프로그램도 제안하는 바이다.

둘째, 탈북청소년의 문화변용과정을 돕기 위해 가족 단위의 개입이 필요하다. 통일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각 부처에서 탈북청소년에 대한 여러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개인 단위의 개입이 주를 이룬다. 따라서 가족구성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개발·시행되고, 현존하는 가족상담 지원 또한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가족응집성 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긍정적 심리·사회적 적응을 예측하는 통합과 동화형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혀진바, 가족응집성을 높이는 것에 목표를 둔 상담적 개입이나 부모교육이 유효할 것이다. 가족응집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가족여가, 양육태도, 자녀의 자존감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검증된 것은 의사소통 방식이었다(서지은, 김희정, 2012). 따라서 문화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청소년의 가족단

위 개입에 있어, 가족응집성에 대한 강조와 함께 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훈련 내용이 포함된다면 개입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탈북청소년이 두 문화권 모두와의 접촉 및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원문화집단의 친구지지의 경우 가장 부정적인 적응수준을 예측하는 주변화 유형에 속할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검증된바, 탈북청소년들로 구성된 또래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그리고 원문화집단 내 교류프로그램 활성화가 제안된다. 특히 주변화형 비율이 높다고 알려진 정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탈북청소년(금명자 외, 2004)에게 이러한 개입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탈북청소년이 지각한 남한친구지지는 높은 적응수준을 예측하는 통합과 동화유형에 속하도록 기여하는 바, 남한 친구들과의 교류를 증진시키고 또래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는 상담적·교육적 개입의 필요성이 제안된다. 특히 이러한 개입은 분리형의 비율이 높은 대안학교 학생들(금명자 외, 2004)이나 분리형과 주변화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중국출생 집단에게 그 중요성이 클 것으로 시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반 공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을 표집할 경우 그 과정에서 연구대상자의 신분이 원치 않게 주변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 주로 탈북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와 지원센터 등을 임의 표집하는 동시에 눈덩이 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표집 방법과 주로 대안학교 학생들이 포함된 표본구성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탈북청소년의 경우 출생국, 부모의 나라, 남한입국 전 머물렀던 나라 등 한 개의 나라로 원문화 정체성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수집된 일부 연구대상자의 응답에서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한 개인이 가진 문화적 정체성의 수에 상관없이 탈북청소년의 문화변용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측정도구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본 연구결과는 탈북청소년의 문화변용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탈북청소년의 상담이나 교육장면에 도움이 될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고길곤, 탁현우 (2016). 설문자료의 결측치 처리방법에 관한 연구: 다중대체법과 재조사법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4(4), 291-319.
- 교육부 (2017). 교육부 보도자료: 2017년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 계획.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lev=0&statusYN=C&s=moe&m=0204&opType=N&boardSeq=70825>에서 인출.
- 금명자, 권해수, 이희우 (2004). 탈북청소년의 문화적응과정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95-308.
- 금명자, 김동민, 권해수, 이소영, 이희우 (2003). **통일 대비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개발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연희 (2009).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중도탈락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사회복지학**, 61(4), 191-215. doi:10.20970/kasw.2009.61.4.008
- 김원표 (2017). **다시 쓰는 통계분석 고급회귀분석**. 서울: 와이즈인컴퍼니.
- 김윤나 (2008). 북한이탈청소년의 문화적응 과정 분석: 적응유연성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 연구**, 19(3), 139-168.
- 김윤나 (2010). 북한이탈청소년의 적응유연성과 교육적 함의. **통일교육연구**, 7(1), 90-106.
- 김형태 (2004).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유형에 관한 통합적 비교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형태 (2010). 북한이탈청소년의 적응유형에 따른 심리사회적 특성 비교 및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청소년학연구**, 17(9), 27-59.
- 김혜숙, 김도영, 신희천, 이주연 (2011).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집단정체성, 문화 적응 이데올로기와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51-89.
- 김희경, 신현균 (2015).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비교: 성과 연령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20(3), 347-367. doi:10.21193/kjspp.2011.25.2.004
- 박영숙 (2012). 북한이탈청소년의 문제행동과 문화변용 정체성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3(2), 144-154. doi:10.12799/jkachn.2012.23.2.144
- 박윤숙 (2006). **북한이탈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특성과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윤숙, 윤인진 (2007). 탈북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특성과 남한사회 적응과의 관계. **한국사회학**, 41(1), 124-155.

- 박정서 (2015). 한국 청소년의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분석 연구. **다문화교육연구**, 8(3), 153-175. doi:10.14328/MES.2015.9.30.153
- 백혜정, 길은배 (2008).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통합적 이해: 적응-부적응의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5(4), 221-240.
- 백혜정, 길은배, 윤인진, 이영란 (2007). 남한 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심리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적응준비도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8(2), 183-211.
- 서지은, 김희정 (2012).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0(3), 457-486.
- 심양섭, 김현주 (2015). 탈북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과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북한학보**, 40(1), 36-66.
- 양혜린, 김옥수, 고윤정, 박연미, 이해란 (2016). 제3국 출생 탈북 청소년들의 삶의 경험에 관한 연구-입국 전· 후 적응과 지원체계경험을 중심으로. **어린이재단 연구논문 모음집**, 2016(0), 152-215.
- 이기영 (2002).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한국청년연구**, 13(1), 175-224.
- 이미숙 (2014). 척도 번역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본 한국어 FACES IV 의 적절성에 대한 고찰. **지체중복장애연구**, 57(2), 23-44. doi:10.20971/kcpmd.2014.57.2.23
- 이주아, 이은경, 이순형 (2016). 북한이탈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자기역량지각과 가치지향에 따른 적응적응성의 차이.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80-280.
- 전혜림 (2014).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남한사회적응.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영선 (2018). 북한이탈청년이 인식하는 차별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9(4), 113-147. doi:10.14816/sky.2018.29.4.113
- 정정애, 손영철, 이정화 (2013). 북한이탈주민의 탈북동기와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적응 유연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22(2), 215-248.
- 정지영 (2008). 가족 유연성과 응집력 평가척도(FACES IV)의 한국판 신뢰도 및 타당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좌동훈 (2014). 중도입국청소년의 출신 국적과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심리, 사회적 적응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1(1), 97-126.
- 진미정, 이순형 (2007). 가족특성에 따른 새터민의 사회문화적 적응. **대한가정학회지**, 45(5), 63-74.
- 채정민 (2003).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내 심리적 문화적응 기제와 적응행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채정민, 이종한 (2004).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남북한 문화이질성: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적응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0(2), 79-101.
- 최경자, 곽종문, 채경희, 박찬수 (2011).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와 무연고 탈북 청소년의 학교적응 실태(연구총서 2011-04).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한나, 이승연, 이지영 (2017). 북한이탈 청년의 문화적응에 따른 군집유형별 문화적응 스트레스, 일상적 차별감, 남/북 공동체 지지 간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1(2), 77-100. doi:10.21193/kjspp.2017.31.2.005
- 한미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홍순혜, 이숙영 (2008). 청소년 새터민의 문화변용과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 연구*, 15(6), 121-144.
- 홍순혜, 이숙영, 김선화 (2010). 북한이탈청소년의 문화변용 추적과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1), 343-365. doi:10.20970/kasw.2010.62.1.014
- 홍순혜, 정익중, 박윤숙, 원미순 (2003). 북한이탈청소년들의 남한사회적응 향상을 위한연구.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 논문집*, 12(524), 61-78.
- 황미혜 (2019). 통일 후 사회통합을 위한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이중언어사용 활용 방향. *오토피아*, 33(4), 111-144. doi:10.32355/UGHTOPIA.2019.02.33.4.111
- Ahn, H. S. (1999). *Juggling two worlds: Ethnic identity of Korean-American college students*. 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 Barnes, S. A., Lindborg, S. R., & Seaman Jr, J. W. (2006). "Multiple imputation techniques in small sample clinical trials". *Statistics in medicine* 25(2), 233-245. doi:10.1002/sim.2231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1), 5-34. doi:10.1080/026999497378467
- Berry, J. W., Phinney, J. S., Sam, D. L., & Vedder, P. E. (2006). *Immigrant youth in cultural transition: Acculturation, identity, and adaptation across national contexts*.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Dubow, E. F., & Ullman, D. G. (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1), 52-64. doi:10.1207/s15374424jccp1801_7
- Gorall, D. M., Tiesel, J., & Olson, D. H. (2004). *FACES IV: Development and validation*. Minneapolis, MN: Life Innovations.
- Ibrahim, J. G., Lipsitz, S. R., & Chen, M. H. (1999). Missing covariates in generalized

- linear models when the missing data mechanism is non-ignorable.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61(1), 173-190. doi:10.1111/1467-9868.00170
- Miranda, A. O., Estrada, D., & Firpo-Jimenez, M. (2000). Differences in family cohesion, adaptability, and environment among Latino families in dissimilar stages of acculturation. *The Family Journal*, 8(4), 341-350. doi: 10.1177/1066480700084003
- Olson, D. H., Russell, C. S., & Sprenkle, D. H. (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VI.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22(1), 69-83. doi:10.1111/j.1545-5300.1983.00069.x
- Oppedal, B., & Idsoe, T. (2015). The role of social support in the acculturation and mental health of unaccompanied minor asylum seekers.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56(2), 203-211. doi:10.1111/sjop.12194
- Verkuyten, M., & Thijs, J. (2001). Ethnic and gender bias among Dutch and Turkish children in late childhood: The role of social context.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and Practice*, 10(4), 203-2. doi:10.1002/icd.279
- VidaVidal de Haymes, M., Martone, J., Muñoz, L., & Grossman, S. (2011). Family cohesion and social support: protective factors for acculturation stress among low-acculturated Mexican migrants. *Journal of Poverty*, 15(4), 403-426. doi:10.1080/10875549.2011.615608

ABSTRACT

The effects of personal and social factors on the acculturation of North Korean adolescent defectors

Choi, Ina* · Lee, SoYe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personal and social factors on acculturation types among North Korean adolescent defectors. The subjects consisted of one hundred twenty-nine 13- to 24-year-old North Korean Adolescent Defector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ountry of birth (North Korea or China) w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acculturation types. North Korea-born youths were more likely than China-born youths to be in the assimilation type compared to the integration, separation, and the marginalization type. Second, family types and family cohesion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acculturation types. Specifically, higher degrees of family cohesion significantly increased the likelihood of belonging to the integration type compared to the separation and marginalization types. It also increased the likelihood of belonging to the assimilation type compared to the marginalization type. Third, higher perceived levels of social support from heritage culture friends significantly increased the likelihood of belonging to the integration, assimilation, separation types compared to the marginalization type. On the other hand, higher perceived social support from South Korean friends was found to significantly increased the likelihood of belonging to the integration and assimilation types compared to the separation and marginalization types.

Key Words: North Korean adolescent, acculturation, family function, social support

* Sookmyung Women's University, Division of Child Welfare & Study/MD, lovelyina0210@gmail.com

** Sookmyung Women's University, Division of Child Welfare & Study/Professor, leesy@sookmyung.ac.kr